

지역 중기 비싼 전기료에 등골 휜다

대기업 편의주의 정책에 16% 비싸게 사용
경영 갈수록 악화... "전용요금제 도입해야"

주력산업의 부진, 노동·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광주·전남 중소제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배려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논의중인 '경부시간대 전기요금 조정안'이 대기업 편의주의로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업계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기요금제는 주택용·일반용

·산업용·교육용 등 용도별로 구분해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 전력'은 잉여전력의 분산을 위해 시간대별·계절별 전기요금제가 다르게 책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는 경부시간대(23:00-09:00)의 경우 kWh당 54원-69원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최대부하 시간대(09:00-12:00, 13:00-17:00)의 경우 78원-197원에 전기를 판매한다. 그의 시간대인 중간부하 시간대의 전기요금은 59원-115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달리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별도의 전력공급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기준 평균 전력구매단가(kWh)는 중소기업 116원·대기업 105.8원으로 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한 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kWh 후생손실 추정치는 대기업 2.44원/kWh·중소기업 6.05원/kWh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을 해야하고, 거래처 발주 시기도 일정치 않다"며 "영세한 기업 일수록 새로운 시설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보면 생산에 차질없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하남산단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경부요금에 상승해도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를 ESS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1MWh를 저장할 수 있는 ESS 한 대를 구입하는 데 6억-8억이 들어간다. 비용부담으로 ESS를 구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길용현 기자



구제역 막아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인 7일 오후 구제역 차단을 위해 일제방역에 나선 담양군과 담양축협 방역관계자들이 담양읍 강정리의 한 축사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기득권자의 이기주의"

이용섭 시장, 정례회서 현대·기아차 노조 등 작심 비판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통한 완성차 공장 설립 추진을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정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에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됐다"며 "일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 오해 내지 편견이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이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하는 단견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 등을 겨냥해 이처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투자협약 반대 투쟁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며 "고용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침체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지역사회에 잇단 온정

설명절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쾌척'
소방공무원 자녀에 2,500만원 장학금
농아인협회에 성금·김치나눔 행사도

광주·전남 최고의 정론지를 지향하는 전남매일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환원 및 불우이웃 돕기에도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매일은 설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KBC광주방송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에 전달했습니다. 전남매일은 지난해 11월 27일엔 지역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5개 소방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에 2,500만원의 통근기 개소방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에 2,500만원의 통근기



박철홍 회장 김선남 대표이사

지방언론으로서 극히 드문 이같은 전남매일의 기부 실천은 박철홍 회장의 '기업이익 사회환원' 의지를 받은 김선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나눔 실천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매일은 2019년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여론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불우이웃 돕기와 사회환원 활동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지역민은 물론 독자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2곳 첫 탄생

지원금·각종 인센티브 혜택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2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최근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인증 중소기업으로 ㈜해태제과 식품 광주공장(주)과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등 2곳을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작업을 추진했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2개 이상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선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해태제과식품이 적정임금과 노사 책임경영 분야

에서, 매일유업이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분야에서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들 2개 업체에 각각 5,000만원의 인증지원금을 전달하고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증기업 선정은 현대 완성차 공장 유치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해 모범 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에 본격화하고자 '광주형 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이번에 선정하는 수행기관은 광주형 일자리 기업 공모와 인증지표 평가를 통한 기업발굴, 광주형 일자리 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참여기업 인증기준 컨설팅 등을 맡는다. /황애란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518run.com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제19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19. 5. 11 (토) 집결 08:00 / 출발 08:50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운동장)

종목및참가비 ▶ 5.18km, 5.18km빛코스 10,000원 / 10km, 하프코스, 30km 30,000원
접수기간 ▶ ~ 2019년 4월 19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 전화, 팩스, www.518run.com / 0518run@hanmail.net
문의 ▶ TEL (062) 720-1014,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문의 ID : jndnnews

※ 식전행사에 참가자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합니다.

광주광역시시민참여위원회와 함께 하는 5.18빛코스(시각장애체험코스) 문의전화 062) 415-9529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주관 JM 스포츠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518구속부상자회 전라남도지부